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선출에 전북은 들러리 서나

82.65% 압도적 지지 불구 당주요직 전북출신 인사 없어 원내대표 김병기-서영교 2파전 당대표 정청래-박찬대 2파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에 압도적인 지지로 기여한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당대표 보궐선거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조차도 배출하지 못하는 등 또다시 들러리 신세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및 원내대표에서 전북 인사가 선출된 경우는 지난 18대 때 정세균 당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마지막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오는 13일 선출하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접수했다.

원내대표 후보자 접수 결과 친명계(이재명계)인 김병기의원과 서영교의원이 접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될 때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불출마요구를 묵살하고 출마를 주장한 당내 친명계의 원이다.

서영교 의원은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을 지낸 여성 중진 의원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당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기준에 따라, 권리당원의 의견 20%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수렴하고, 13일 열린 의총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당대표 보궐선거전도 시작되었다.

앞서 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임시 전당대회일 경우 30일로 축소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헌 개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의 이같은 당대표 보궐선거에는 현재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당대표 보궐선거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임명에 따라 공석이된 최고위원 1명도 새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당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전북 인사는 없다. 물론 1석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전북인사가 나설 수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다.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위해 전북은 82.6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으나, 당내에서의 전북 정권의 위상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없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도, 군산시가 ㈜디에스단석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주상공회의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김정태 전주상의회장과 우범기 시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주)디에스단석 군산에 1조 900억 투자

2031년까지 군산국가산단에 바이오연료 공장 건설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친환경 에너지 선도기업 ㈜디에스단석과 총 1조 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한승욱·김종완 ㈜디에스단석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에스단석은 오는 2031년까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231,880㎡(약 7만평) 부지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수첨 식물성오일)로 기존 바이오디젤에 비해 환경 친화성, 저장 안정성, 성능 면에서 모두 우수한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디젤, 바이오나사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총 투자 금액은 약 1조 900억 원에 달하며, 265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디에스단석은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디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원순환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팜택에 HVO 생산시설을 구축해 차세대 바이오연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스위스 콜마그룹(KOLMAR GROUP)과 940억 원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입증한 바 있다.

군산에 조성될 신공장은 ㈜디에스단석의 미래 전략을 집약한 'Net Zero 복합단지(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생산시설·에너지 회수설비·재활용 인프라 등을 갖춘 복합적인 시설)'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생산시설과 에너지 회수설비, 재활용 인프라가 통합된 친환경 산업 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생태계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 동부권 첫 공급요양병원
9일 무주서 개원... 9면

‘전주경제중심’ 탄소기업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오스트리아비엔나사무소개소 지역기업유럽판로확대청신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전주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길이 확 열릴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적인무역협회(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

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 시장은 또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글로벌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

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옥타 비엔나 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부안군의의회

의회

군민7월에,
한번더작 더가까이!!

좋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은행, 서민금융지원 7,524억 ‘실적 1위’

대형·지방 은행 제치고 선두 중저신용자 대출 67% 집중 최저신용자·다중채무자 포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해 서민금융지원 실적 7,52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은행권 선두에 올라섰다.

지난달 29일 발간된 은행연합회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youth,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실적에서

전북은행이 7,524억 원으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실적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은행권 1위 수준은 그동안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던 전북은행은 신한은행(7,458억원), 우리은행(6,784억원), 농협은행(5,981억원), 국민은행(5,932억원) 등 대형 시중은행들을 앞지르며 지역기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이 실질적인 서민금융 활성화와 포용적 금융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치이다.

특히 다 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신

용평점 하위 50%이하 중·저신용자와 국내 은행들이 취급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대출 비중이 올해 4월 기준 가계대출의 67.5%에 달한다.

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로 정책서민금융 이용마저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별보증대출’의 경우 전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다중채무자의 경우도 지방은행 중 63.2%, 전체 은행중에서는 14.0%로 전북은행의 취급

비중이 높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결과로 전북은행이 지역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서민금융의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 및 사업들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공산품 중소기업 우수상품 발굴

품질 공인·판로개척 지원 이달 30일부터 시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을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상품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대표상품을 발굴해 품질을 공인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도는 현재 81개의 우수상품을 지정하

여 지원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난 우수상품(34개)은 제외되며, 추가로 40개 내외의 우수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3년간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인증마크(JB) 상품 부착 사용, 국내 판촉행사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이번 우수상품 선정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단순한 품질 인증을 넘어 ‘도민과 함께하는 대표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청 가능 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 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이며, 기업당 대표상품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3년 이상,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 품질인증 1건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원료 기준은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 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상품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

북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상품 선정 사업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신청 ‘이번주까지’

신청 기한 13일까지 연장 조사로 5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작물 신청 기한을 6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마치지 못한 농업인을 고려한 것으로, 전략작물 재배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논에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참깨·들깨)를 파종 및 수확하는 경우로, 지목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1ha당 ▲가루쌀·두류 200만 원 ▲옥수수·깨 100만 원 ▲조사료 500만 원이며, 이 모작(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시에는 1ha당 100만 원이 추가로 지

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인 해당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6월 말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농지 면적이나 재배 작물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일정으로는 10월까지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파종 및 수확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이 진행되고,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림축산산업국장은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함으로써 쌀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신청 기한을 6월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길 바란다”며,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신협 온뱅크 5주년, 감사 이벤트 ‘포성’

신규 가입자 1만 원 혜택 즉시이체 수수료면제 연장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모바일뱅킹 앱 ‘온(ON)뱅크’ 출시 5주년을 맞아 6월 9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약 5개월간 고객 감사 이벤트를 마련해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기존 온뱅크 회원, 신규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에서 출석체크 톨렛을 포함한 총 3종의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운의 출석체크 톨렛’ 이벤트는 매달 둘째 주(단, 10월과 11월은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운영된다. 온뱅크 회원이라면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매일 최대 3,050명씩 총 18,300명에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협은 고객의 일상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온뱅크의 즉시이체 한 특별 보상에 마련됐다. 매달 3회 이상 톨렛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증정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총 6명이 선정된다.

온뱅크 신규 가입자를 위한 보너스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이벤트 기간 중 온뱅크에 새롭게 가입하고 자동납부(요금납부성 자동이체) 또는 오픈뱅킹을 신청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모바일 교환권 1만 원을 증정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온뱅크 5주년을 맞아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흥미로운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협 온(ON)뱅크는 예금·대출·결제·체크카드·조합원 가입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협은 고객의 일상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온뱅크의 즉시이체 수수료 면제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김영태 기자



남원축협이 전북농협의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인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도입에 이어 스마트 경매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사진=전북농협>

남원축협, 스마트 전자경매 안내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연동 출품우 정보 계류대 LED 표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이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도입에 이어 지난 5일 스마트 경매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개장식을 개최했다.

남원시 조산동 광천남길에서 가축시장을 운영 중인 남원축협은 최근 스마트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2단계 준공을 마치고 여러 번의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적인 스마트 가축시장 경매에 나선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이정민 전북도의원, 이희선 전북도청 축산과장, 안동준 남원시 축산과장, 안찬우 전북농협 경제부분부장, 오영석 농협 남원시지부장, 한경석 남원축협 조합장, 서민석 NH 참여우 대표이사, 박

진만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등 임직원 및 조합원 다수가 참석했다.

남원축협 스마트 가축시장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에는 한우를, 넷째 주 수요일에는 염소 경매시장을 개장한다. 스마트 가축 경매시장은 가축시장 방문 없이 원격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종이에 적어 게시하는 옛날 방식을 아닌 계류대 개별 전광판을 통해 출장우 정보내역을 전자식으로 표출한다. 개별 전광판은 경매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 성별, 출생일자, 축주 등의 정보들을 기존 종이 방식보다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남원축협의 스마트 경매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전북축협 가축시장 9개소 중 9개소가 구축을 완료해 전북축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 가축시장을 갖게 됐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농지부담금 공동명의 환급 간소화

공동명의 환급 2일 내 처리 신청 절차 줄여 이용자 편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공동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ICT·SW ‘Vibe Coding’ 교육



개발자·전공생 역량 강화 프론트·백엔드 맞춤형 실습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하현)은 9일 전북지역 ICT/SW 개발자와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업에 바로 적용하는 Vibe Coding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Vibe Coding’은 △GitHub Copilot △Cursor △Windsurf 등 최신 AI 기반의 코딩 보조 도구를 활용해 요구사항 분석부터 코딩 및 테스트, 배포까지 실무 과정을 실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세대 개발 방식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적디지털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품질기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북 ICT/SW 기업 관계자들의 개발 생산성과 품질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정재근 기자

교육은 전북 유일의 소프트웨어 품질전담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접 기획·운영을 맡아,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교육에는 Amazon Web Services(AWS)의 테크니컬 트레이너 출신인 정도현 수석 컨설턴트(현 로보코)가 강사로 나서 △바이브 코딩 도구 소개 및 실전 활용법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AI 코딩 도구를 활용한 구현 실습 △자동화 테스트 및 배포 경험 △실습 결과 공유 및 실무 컨설팅 Q&A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는 대부분 코딩에 익숙한 현업 개발자들로, 자신의 개발 역활(프론트엔드/백엔드 등)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맞춤형 실습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기도 했다.

농진청, 곤충산업 활성화 홍보전

경제성 높은 곤충 먹이원 개발 기능성 연구 실용화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미래 먹거리인 곤충의 먹이원 개발과 현장 확산, 기능성 검증·실용화 연구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곤충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00억 원에서 2020년 414억 원까지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 추세가 완만해졌다.

2023년 곤충업 개소 수는 3,013곳, 1차 산물 판매액은 473억 원으로 2022년보다 각각 5.4%, 5.2%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4.4%, 3.9%에 머물러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 곤충과 곤충 산물이 낯설고, 체형 부족 등으로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아 산업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업인과 산업체는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곤충 먹이용 사료 지원, 수요처 확보, 소비자 인식 변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먹이 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 높은 곤충 먹이원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해 버섯재배부산물 등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곤충 먹이원의 영양성과 경제성

구명, 제조법 표준화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곤충산업 거점단지 3곳 2025년 강원 춘천, 2027년 경북 예천, 전북 남원이 준공되면 곤충 먹이원 제조시설이 구축돼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므로 생산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요처 확보 지원에 필요한 곤충 기능성 구명과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홍잠(약한숙잠)은 비알코올성 간 건강 개선, 식용곤충 꽃병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는 면역 개선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을 추진 중이다. 시험이 완료되면 각각 율해와 내년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식품의약국(FDA)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homolog을 등록하기 위해 율해 원료 신청을 추진하고,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 접촉 확대하고 인식 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곤충의 가치, 기능성 등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홍보한다. 곤충의 날 등과 연계해 다양한 곤충 식품을 소개하고 학회에서 발표해 소비자, 산업계는 물론 의학계까지 홍보를 확대하고 산업 저변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수능 국영수 성적 여전히 전국 하위권

전국 평균 하위권에 몰려 지난해보다 소폭 더 하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력신장을 약속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영, 영어, 수학 3개 과목에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전북지역 수능생들의 국영수 등급은

하위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시자는 46만3486명으로 지난 2024년 44만487명보다 늘었고,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34.7%로 2024년 35.4%보다 증가했다. 전북은 100개교에서 1만917명이 응시했다. 지역별 분석 결과 국어 1·2등급 합산 비율은 서울이 13%(1등급 5.2, 2등급 7.8)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5.9%(1등급 2.1, 2등급 3.8)로 전국 평균인 8.1%(1등급 3.0, 2등급 5.1)보다 낮았다. 반면 국어 과목 8·9등급 비율에서 16.4%로 전

국 평균 13%보다 높았다. 수학 1·2등급 합산비율에서도 전북은 5.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8·9등급 합산비율에서는 1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영어 영역에서도 1·2등급 합산비율이 14.5%로 전국 평균 이하였고, 8·9등급 합산비율은 7.4%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시도별 표준점수도 낮았다.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국어 과목에서 전북은 93.0으로 전국 평균인 96.5보다 낮았다. 국어 과목에서 전북 지역

표준 점수 최고는 123.7이었고, 최저는 71.9로 차이는 41.2이었다. 수학 과목에서도 평균 94.5로 전국 평균(96.8)보다 낮았다. 이번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과 지난 '2024학년도 분석'을 비교해 본 결과 국어·수학 영역 표준점수 평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분석을 통해 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도내 국립대,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교육협력 선포식’ 개최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국립대학이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9일 오전 2층 강당에서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선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엄기국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본청 실·과장, 대학 보직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3개 국립대학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상호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

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의 비전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 각 대학에 협력관을 파견해 대학과의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한다. 아울러 △학력지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협력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운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 교류를 넘어, 전북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정착하는 구조를 만들어 교육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전북형 교육모델 구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배드민턴팀, 국비공모 선정 경쟁력 강화 기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사업 국비 2억 7000만 원 확보

전북자치도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되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역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실업팀을 창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전국 12개 선정팀 중 충북·강원과 함께 선정 금액 중 최대인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배드민턴팀은 지난해 11월 13일 남자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됐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

다. 더불어 배드민턴팀은 창단 초기부터 지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강습과 체육 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 우선 영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 내 유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주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실업팀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육 위상 강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국제 스포츠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배드민턴팀 창단뿐 아니라, 지역 체육 생태계를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자란 선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팀에서 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청,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인정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표준화된 기록관리 정책 추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록보존서고 정비 및 운영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산하 14개 기록관에 일괄 적용해 기록관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였다.

단순한 서고 정비를 넘어 기록관리 전반에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적용한 점이 주목받았다. 특히 각 기록관의 환경과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자체 보존가치 평가기준도 도입해 기

록물의 현장 평가 역량을 높였고, 지도 점검 방식도 내실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북 교육기록연구협의회’를 신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서 교육감 “대통령 교육 공약 세심히 살펴야”

9일 전략회의서 당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9일 전략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 공약과 향후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예를 들면 AI 교과서 지위라든가 교사 연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총괄평가, 온 동네 초등 돌봄, 유보통합, 시도교육청 평가 제도 변화 등에 대해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교육부의 주요 정책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며 “우리 정책이 교육부 정책과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북이 한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서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학교 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 학생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병원-메이요클리닉, 글로벌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과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양종철 병원장과 메이요클리닉의 신경공학·정밀수술 연구소 켈달 리 교수가 정밀의료와 의료기기 실증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동연구와 사업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메이요클리닉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본사를 둔 130년 역사의 종합 병원으로 미국 내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전북의 세계적 탄소소재 기술력을 의료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켈달 리 교수는 양종철 원장과 만나 병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실증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와 글로벌 혁신의료기술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리 교수는 “전북대병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는 최고 수준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면 수준 높은 의료기기를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메이요클리닉과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우리 병원의 기술력과 임상 기반이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약속 6가지

실천1 안 쓰는 조명 소등하기!!



실천4 점심시간 모니터 끄기!!



실천2 에어컨 설정온도 26℃ 유지하기!!



실천5 가까운 층은 계단 이용하기!!



실천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멀티탭 끄기)



실천6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하기!!





군산시, 백토로 일대 ‘사계절 가로정원’ 조성

군산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백토로(백토고개사거리~백토사거리, 연장0.4km) 구간 상가 방면에 ‘사계절 가로정원’을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백토로의 가로수였던 버즘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배전선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예산의 반복 투입 및 수형 불량으로 경관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가로수 내부에 공동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 수목이 쓰러질 우려가 있었고, 봄철에는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한 시는 먼저 상가 방면의 기존 우랑 가로수를 이식하고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해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상록활엽수종으로 수종을 갱신했다.

아울러 화단에는 포인트 수종과 다양한 초화류를 함께 심어 단순한 보행공간을 넘어 변화와 다채로움이 가득 찬 녹색정원으로 조성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6월 13일까지 추가 신청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당초 기한인 5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형 직불금 등 다른 사업과의 신청 혼선이나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놓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상원별 3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할 후 추척 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사랑상품권 다이로움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읍면동 외곽 지역이나 시간상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캠페인’과 ‘마음건강지킴이 출장상담소’를 운영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마음안심버스 캠페인’은 이동상담 차량을 활용해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검진,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건강지킴이 출장상담소’는 정읍사랑병원, 아산병원, 공용버스터미널, 세무서 등 시민 유동이 많은 거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전북자치도 시군 중 1위 특별교부금·기관표창 받아

익산시가 재난관리 분야에서 전북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명실

상부한 재난안전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2022년에 전국 기초지자체 1위, 2023년부터는 도내 1위를 계속 지켜왔고, 특히 지난해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에도 선정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 대응체계

유지,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 그리고 재난안전 재정투자 확대 실적과 기관장·부기관장의 대응 역량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시는 국고 지원 시 추가 혜택은 물론, 특별교부금과 기관표창 혜택도 받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이 평소 재난 대비에 함께 힘써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발굴 착수

백제 중방문화권 핵심 유적

정읍시가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나서며, 백제 마한문화권 복원과 지역 역사 자산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km 구역에 분포된 270여 기의 고분 중, 은선리(영원)와 도계리(덕전)에 집중된 황혈식 석실분 56기를 중심으로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해당 고분군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시굴·발굴조사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삼국시대 백제 고분 20기를 새롭게 확인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금제구슬(金釧玉), 금제반지(金製指環) 등 고급 장신구가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백제 웅진기 주요 고분에서 확인되는 수준 높은 유물로, 당시 지방통치체계 및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

<사진=정읍시>

시는 이번에 출토된 주요 유물을 오는 26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정읍의 마한·백제문화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시는 2026년까지 구역별 정밀 조사를 완료

한 뒤, 2027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3개년에 걸친 복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발굴 완료 시점에 고분군 현장을 시민과 학계에 공개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으로, 고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산하는 계기를 삼을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시민체감 규제발굴 보고서

김영민 부시장, 총 32개 안전 생활 밀착형 개선 과제 발굴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소장이 참석하여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공급방안 개선,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상향 적용한 계획홍수량 적용에 관해서는 군산시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재

대출 제한 완화’ 및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등 적극행정 규제 개선 사례 11건도 함께 논의됐다.

김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제대회 잇단 유치…스포츠 도시 위상 ‘우뚛’

장애인펜싱 등 연속 개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대규모 국제대회를 연달아 유치하며 스포츠 중심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

익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익산 WA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9월) △코리야마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11월) △20세 이하 코리아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12월)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익산 WA 장애인펜싱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장애인 펜싱계에서 패럴림픽 다음으로 높은 랭킹포인트가 부여되는 권위 있는 대회다.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패러게임’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핵심 대회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급 24만 달러가 걸린 월



드투어 대회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익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현장 관람뿐만 아니라 방송 중계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들이 펼치는 수준급 경기를 만날 수 있다.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세 이하 코리아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유망한 신인 선수들에게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익산시가

아시아 펜싱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탄탄한 체육 기반과 쾌적한 훈련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선수들이 찾는 최적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 1차 우수 제안 선정

민관협업 정책디자인

군산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했던 ‘민관협업 정책디자인 우리들의 군산 2025년 군산시 시민 제안 공모전’ 1차 우수 제안을 9일 발표했다.

군산시민 대상의 이번 공모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3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민 제안 71건의 공모를 접수했다. 시는 접수된 71건의 제안 중 실무 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민 우수 제안은 총 7건으로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군산 조

성 △군산 시간저축은행 △1. 꽃이 있어 즐거운 도시 군산 2.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군산 △도심 근린공원 정원화 및 인공폭포 설치 △동네소꿉친구(동네 육아카페) △“성장캘프: 9시까지 놀자!”△안전한 우리 동네공원 이름표 달아주기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기존과 공모전과 달리, 선정된 우수 제안을 한 시민과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함께 민관 정책T/F팀을 이루어 정책을 연구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내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제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제안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에서 들려줄 식품 이야기…청사진 그린다

국립식품박물관 중간 보고회 참여형 박물관 조성

익산시가 국가 식품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아우를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9일 익산시청에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과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익산시·익산시의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국립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계획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조

울해 현실적인 실행 전략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고회에서는 △식품박물관의 기본 방향 △전시, 체험, 교육 등 공간 구성 △운영 방식과 단계별 추진 전략 등 안건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립식품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우리나라의 식품 문화와 산업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참여형 박물관’으로 조성된다.

이는 식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물론, 미래 식품산업의 비전 제시와 산업 홍보 거점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품은 익산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국립식품박물관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시는 박물관 건립이 식품 문화의 대중화와 관광 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지킨다

근로환경 실태 점검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

게시간·일 보장, 숙식비 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정읍, 농가에는 공백 없는 농촌 인력을 제공하는 정읍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활성화 시동

10일부터 1만 원 할인쿠폰 제공

군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배달의명수’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 3월~5월에 소상공인·경제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고, 라이다 미연동 문제 등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소비자 893명, 가맹점 25개소)도 진행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앱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쿠폰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이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시는 주문 시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한 할인쿠폰을 제공, 많은 소비자가 ‘배달의명수’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현장 홍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군산대학교 축제, 새만금마라톤 행사 등 현장 홍보 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6월을 ‘배달의명수’ 가맹점 확보를 위한 집중 유치 기간으로 설정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문모세)와 공무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사가 협력하여 군산시 내 각 상점을 방문하며 가맹 안내를 하는 한편, 신규 가맹점 확대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만 원 이상 결제 3회 시 1만 원 쿠폰 제공’ 프로모션이 시행된다. 이 행사를 통해 시는 소비자의 지속적 이용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인구 10만 시대’ 군민과 축하

이서면 10만번째 주민등록 이서 지역주민과 공유 정책·정주환경 개선 성과

완주군이 9일 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 10만 번째 주민 등록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다. <관련기사 12면>

이날 행사는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군민 모두의 노력과 협력 덕분에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완주군이 9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 10만 번째 주민 등록 기념식수에 앞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완주군>

싶은 행복경제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만 번째 주민을 배출한 이서면에 공로증서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전 참석자와 함께 기념식수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완주군은 인구감소 시대 속에

서도 지속적인 전입 유도, 정주환경 개선, 청년 및 가족정책 확대 등을 통해 2025년 상반기 기준 인구 1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정체성 강화와 인구정책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빛으로 밝히는 경천길’ 본격화

도자치경찰위 공모 선정 경천 산책로 안전 최우선 ‘스마트 안전길’ 구축

순창의 대표 산책로인 경천길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환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공모에서 순창군의 ‘빛으로 밝히는 행복한 순창 경천길 조성사업’이 선정되며 지역 맞춤형 안전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도내 7개 시·군 중 순창군은 도비 1억 원에 포함한 총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빛으로 밝히는 행복한 순창 경천길 조성사업’은 순창읍 경천 산책로 구간에 ▲태양광 표지병 ▲교량 LED바 ▲로고제터 ▲CCTV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스마트 안전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천 산책로는 주택가와 인접해 야간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지만, 조도 부족과 범죄 취약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체감 안

전도를 높이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순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이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높은 방법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범죄예방 모델로 서도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경천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해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범죄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K-수직농장’ 세계화 본격 시동

세계화 사업 킷오프 성료 38억 투입 수직농장 실증

남원시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2025년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준비하는 킷오프 워크숍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참여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고 밝혔다.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농촌의 유휴

상가, 공장, 폐교 등 유휴시설을 수직농장으로 리모델링해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자되며 한 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킷오프 워크숍에서는 ▲수직농장 실증 계획 ▲재생에너지 기반 운영 시스템 ▲병풀·적상추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전략 ▲전주기 자동화 기술 개발 ▲경제성 분석과 수익화 모델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은 노암산업단지 내 건립 중인 바이오소재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능성 작물재배 및 수직농장 경제성 검증 등을 실증할 계획이며 바이오작물 재배부터 기능 성분의 표준화, 소재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지역성장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사업에 최신 스마트 팜 기술을 집약적으로 적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는 지속가능한 남원형 농업소득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서남용 의원 대표 발의 채택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9일 제 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의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9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사진=완주군>

특히, 서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급전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

면의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가 지난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등 홍보에 나섰다. <사진=남원시>

남원, 서울국제관광전서 드론제전 알려

남원 콘텐츠 전방위 홍보

드론·로봇축제 미래관광선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등 지역을 적극 홍보했다.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관광 산업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관광 박람회로 관광지 홍보와 문화 교류를 통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남원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와 함께 ‘드론레이싱 중주도시 남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리플렛, 캐릭터 굿즈 배포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은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사업과 연계해 드론 레이싱, 드론 로봇 전시, 시민 체험 프로그램, 국제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되며, 남원이 드론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봄철 농촌일손돕기 ‘실질적 도움’

전 공무원 자발적 참여 추진

작물 수확·농경지 정비 등 투입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농촌 일손이 크게 부족해진 현실을 반영해,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순창군 전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민간 사회단체와 군부대,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매실·복분자·오디 등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을 우선 지원하며, 고추 지주목 설치, 과실 수거, 봉지 씌우기, 비닐멀칭, 병해충 방제, 벼 이앙작업, 영농폐기물 수거와 농경지 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

에도 일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도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사나 읍면 상담소장 등 전문인력이 함께해 참여자에게 작업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문화선도산단 브랜드 ‘w260+’ 발대

260명씩 증가 인구 흐름 착안

지역 정체성 담은 전략 브랜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9일 완주 문화회관에서 ‘완주 문화선도산단 W260+’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산업과 문화, 청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된 데 이어, ‘텐드마크 조성사업’까지 최종 선정되며 총 885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행사에는 완주 산단 입주기업, 지역 주민, 청년, 문화예술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W260+’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완주형 산업문화 생태계의 비전과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발대식은 ▲문화선도산단 추진계획 선포 ▲개회식 및 축사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

됐다, 완주문화선도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W260+’는 ‘문화가 머무르고, 청년이 찾아오며, 산업이 사람을 품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담은 전략 브랜드로, 매달 평균 260명씩 증가하고 있는 완주의 인구 흐름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구이생활문화센터 공연 ‘성황’

동아리·지역 예술인 무대 선포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센터장 권동주)가 9일 ‘함께해요, 문화예술’ 공연을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문화센터 야외공연장(주차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상생·협력·화합’을 주제로 구이생활문화센터와 관내 7개 동아리, 80명의 지역 예술인이 앞자

게 준비했다.

특히 구이농악단, 퍼프리고고장구, 가수 김혜정 등 구이인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구이생활문화센터는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 생활다자기, 통기타, 라인댄스, 소재활용미술, 오카리나, 캘리그라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정규프로그램은 7~8월 중 구이생활문화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제1호 역학조사관 안선희 팀장 임명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제1호 역학조사관으로 남원시보건소(감염병대응팀) 안선희 팀장을 공식 임명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 감염병 대응의 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안선희 역학조사관(현 감염병대응팀장)은 2023년 4월 20일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이후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및 2회 이상의 지속교육,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성실히 이수해 정식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내부 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로 역학조사관 1호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남원시는 코로나19 이후 2개 팀이었던 감염병 관련 조직을,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3개 팀(관리·대응·예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안선희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 분석과 역학조사 수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가와 함께하는 ‘도심 속 금요 피크닉’

완주군 로컬 프리마켓 ‘2025 옐로우마켓’이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 혁신도시 옐로우팜 카페 일원(전주시 옹곡로 38)에서 열린다.

‘도심 속 피크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마켓은 완주 지역 농부들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가공품, 지역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공예품,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 27여 곳의 완주군 로컬 업체가 함께한다.

행사장 옐로우팜은 신선한 완주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과 완주의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농가레스토랑이 함께 자리한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 음악과 과일 음료를 즐기며 피크닉을 온 듯한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쇼핑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사전 예약자 전원에게는 현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의료원-지리산농협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4일 지리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복지 향상에 앞장섰다.

지리산농협과 연계한 이번 농촌 왕진버스는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진료와 영양 수배, 물리치료 등을 시행함으로써 농사일로 바쁜 농민에게 병원 방문이 쉽지 않았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농촌 왕진버스는 남원의료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의료진이 찾아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주시 롯데어린이집, 프리카켓 수익금 전액 기부

전북자치도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롯데어린이집(원장 소효진)이 9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50만8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나눔의 가치와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 진행된 프리카켓에서 원아 가정의 협조로 받은 아동의 류와 놀이감,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모은 수익금 전액이다.

/정재근 기자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 농협네트웍스 이사 취임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사진)이 지난달 30일 농협네트웍스 주주총회에서 농협네트웍스 이사로 선임됐다.

이 조합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이우광 조합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네트웍스의 자회사인 농협파트너스의 이사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농협네트웍스 이사로 취임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네트웍스는 농업 시설 환경 개선공사를 비롯한 관련 시설공사, 업무용 차량 대여, 국내외 여행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어려운 시기에 농협네트웍스 이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합원님을 위한 농정활동과 더불어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잘 사는 북전주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광역자활센터, 익산 청소년에 ‘응원 한 그릇’

익산시는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가 라면 조리 기계 1대와 라면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탁품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백영규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신진규 작가, 전북 공예품 대전 대상

단차의 조화-오단 찻상 세트

완주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신진규 작가가 제48회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 대전에서 ‘단차의 조화-오단 찻상 세트’로 대상을 수상했다.

신 작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천철석 소목장(완주군 구이면)에게 전통 목공예 기술을 배우며, 소목 기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대상작 ‘단차의 조화-오단 찻상 세트’는 36년간 교사로 재직하

가 채육 시간에 사용했던 ‘뽕틀’의 단차에서 영감을 받아 다섯 단계로 구성된 찻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각 단의 미세한 높이 차이를 통해 입체감과 리듬감을 살린 조화롭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작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천철석 소목장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받은 가르침과 전통 공예에 대한 애정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 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시, 제10회 전북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 ‘종합 우승’

전 종목서 두각

지난 6일 전주시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에서 15개 도·시군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탁구동호회(회장 박덕하)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남자 개인전 우승과 준우승, 남자 단체전 우승, 남녀혼합복식 우승, 희망부 개인전 준우승, 희망부 단체전 준우승, 여자 개인전 준우승, 여자 단체전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종목에서 입상하여 압도적으로 15개 도·시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 혼합복식에서 우승을 거머쥐어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군산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매우 기쁘고, 탁구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산발전 건인의 기화로 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남원 미래를 밝히는 별’, 춘향장학생으로 빛나다

(재)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지난 5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재단 이사과 학생, 교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춘향인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는 130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었으며, 장학금은 총 2억 3,500만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우수 장학생 54명 △특기장학생 41명 △보람 장학생 21명 △희망장학생 14명

이며,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에게는 최고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일반 우수 및 특기 장학생 200만 원, 보람·희망 장학생에게는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춘향장학재단 이사장과 장학생들이 남원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이사장님과 토크!’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꿈, 희망 등에 대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위즈어린이집아이들,소방관에 감사의손편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9청소년단으로 활동 중인 위즈어린이집 원아들로부터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손편지는 평소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하며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키워온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방관님 사랑해요”, “불이 나면 가장 빨리 달려와주세요 감사합니

다”, “항상 조심하세요” 등 따뜻한 문구와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담겨 있었다.

소방서는 편지를 전달받은 뒤 내부 직원들과 함께 이를 전시해 감동을 나누었으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린이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이사, 진안군에 5백만 원 기탁

전일목재산업(주) 김병진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전일목재산업은 일반 제재업을 기반으로 원목 수입부터 제재, 건조, 방부, 집성, 가공까지 목재 가공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내에서도 드문 목재 전문기업이다.

김병진 대표이사는 “고향인 진안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이번 기부가 진안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최명권 전주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9일 최근 저출산·고령화·청년유출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휴비스 백승덕 공장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전주시의회 윤혜정, 전주연 의원원을 지목했다.

/정재근 기자

정읍시 보건위생과 직원들, 두릅밭에서 농가 일손돕기

정읍시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지난 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평면 두전리의 한 두릅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두릅밭 잡초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두릅밭 농가주는 “요즘 농번기라 일손이 절실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4가지 참여방법

1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2

손씻고 종이타월 대신

개인손수건사용

3

쇼핑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사용

4

일회용 종이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一事一言〉



새 정부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인사와 정책(1)

안종주

보건학 박사

이번 대선은 윤석열 탄핵에 이어 내란(동조)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대장정의 두 번째 변곡점이다.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인수위원회가 없고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없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서 새 정부 출범을 한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보다는 더 나은, 국민 박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야만 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던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진절머리를 냈다. 진짜 인사 기준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으뜸으로 자리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같은 편'의 이익을 우선하면 처참한 실패가 기다린다. 인사와 정책 실패는 필연적으로 다음 번에 정권교체로 이어진다.

과거 인물을 절대 재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없다. 물론 유능하고 도덕성도 있는 새로운 인물이 좋다. 하지만 과거 인물 가운데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사는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때론 장려할 수도 있다. 과거 인물 가운데 그가 재임 중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인물은 최우선으로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 중

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으나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한 김수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기용되어 다시 한번 김현미 장관 등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집행을 책임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지 못하고 다시 보수·수구 세력에 권력을 넘겨준 데는 '부동산 실패가 가장 크게 기인했다'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인 셈이다.

내각(차관 포함) 인선의 첫 번째 원칙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아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물의 능력, 즉 유능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닌 인사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급등으로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하자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층에게 집이 두 채 이상이면 하나만 남겨놓고 팔도록 지침을 내렸다. 일부는 이를 잘 따랐다. 하지만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참모진 등은 사표를 내어 공직보다 집(돈)을 택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다수 국민은 눈살을 크게 찌푸렸다.

차관급까지 인사를 넓혀보면 임명 때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류 처장은 약국을 운영한 경험 외에는 별다른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 출신으로 취임 직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을 때 미숙한 업무 파악으로 부적격자임을 국민에게 드러냈다. 유능성 함량 미달 인물이었다.

또 박 본부장의 경우 황우석 파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를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힘으로써 문제가 됐다. 그는 과학기술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임명 5일 만에 물러났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 검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진짜과학을 믿지 않고 가짜과학인 창조과학을 신봉했던 사람을 문재인 정부 초대 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했던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는 비뚤어진 신념형 인사였다. 사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한 것도 낯익이 전혀 못 되고 행정 능력도 없는 사람을 반짝 관심 끌기 차원에서 한 '해프닝'식 인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사 원칙은 장관 등을 인사할 때는 반대편의 처지에서 무엇을 문제 삼을지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레드팀'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사권자도 가깝다거나 낙점을 이유로 다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흠결인데도 별것 아닌 사안으로 치부하거나 여러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괜한 트집으로 여긴다면 인사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세 번째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처와 기관의 특성에 걸맞은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각 부처와 청장,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을 유형별로 보면 신념형, 현장·소통형, 안정적 관리자형(행정형), 정치가형, 전문가형, 혁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덕목 가운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두루 갖춘 인물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정 부처와 기관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덕목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

통계청, 소방청, 산림청, 관세청, 국제청, 질병관리청 등 각 청과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는 그 분야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 그 조직에서 잔뼈가 굵었거나 관련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바람직하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우지 라면 사건,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 의약품 위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험소통과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미래 농업의 출발점 돼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농생명산업지구 3곳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얻게 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농생명산업 전환의 결정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지정될 예정인 산업지구는 남원의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진안의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의 김치특화산업지구 등 총 83ha 규모다. 이들 지구는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산업 구성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남원은 첨단 농업기술의 실증과 보급 거점으로, 진안은 국내 유일의 홍삼특구 기반을 살린 기능성 원료 산업 중심지로, 고창은 김치 생산·가공·유통·체험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산업의 첨단화, 통차원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6차산업화를 모두 포괄하는 모델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9년까지 총 2천155억원을 투입해 29개 세부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와 정밀한 산업 구상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스마트팜의 경우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노동력 감소라는 농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 입지는 향후 전북의 농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이는 개발의 속도보다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는 지속가

능한 개발 원칙을 실현한 사례이며,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결과이기도 하다. 사업의 성패는 기술력이나 자본 못지않게 주민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 있다. 향후 시설설계와 착공 과정에서도 이 같은 참여와 소통의 정신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 사업은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농업 혁신 실험장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제도의 뒷받침 등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지역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복지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한 중요하다.

농생명산업은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대표모델이 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지구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화된 농생명자원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더 나아가 중앙정부까지도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국가적 농업 혁신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의 농업지역'이 아닌, 첨단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북 농생명산업지구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여는 테스트베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벌레 먹은 희망으로 / 박노해

뒷밭에 심은 배추를 뽑아
대충 씻어 찜을 싸 먹는데
배추벌레 한 마리가
늘씬늘씬 기어간다

벌레 하나
범접 못하게 혹독하게
인간의 욕망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고놈 참 이쁘다
고맙다
너 아직 살아있구나

내 연몸 속 죽은 듯한
배추벌레들느뜨며, 꿈틀댄다

그냥 문물이 난다
흙집 하나 없는
아주 매끈한 배추처럼

아 나 살아있다
이리 푸른 속울음으로
벌레 먹은 희망으로
나 살아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주경야독으로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7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육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 독자광장 |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삶을 파고드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으니,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를 사칭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 전환대출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접근하여 소위 말하는 혼을 속 빼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순간에 빼앗겨 물질,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피해 연령대도 초반에는 고령층이었으나 최근에는 젊은층 세대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은 정말로 끝이 없다.

변화무쌍한 보이스피싱 검은손



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지만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초창기 그들이 접근했던 수사기관을 사칭한 방법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이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 피해사례로 피해자에게 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사칭하여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계좌이체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자 피해자는 이를 어쩔바를 모르는 사이 거액의 금액을 이체도록하여 피해를 보았다.

이성적 판단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는 악마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눈과 귀가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는게 현실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 요구나 현금 인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환대출을 유도, 신용등급조정, 선입금 요구 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면 된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물질적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 수면장애, 초조, 불안, 감정이 폭발하여 우울증 증상이 더해져 이로 인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두가 정신 무장하고 조심 또 조심하여 악마의 속삭임을 철저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이광진 경위

개암사 동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공예, 의식법구

-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 소재지 -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감교리)



문화재열전

JBT 전북타임즈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시 010-9878-4271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88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완전한 고을’ 완주군 인구 “10만” 돌파

36년 만의 10만 인구 회복 지방소멸 위기 속 성장 모델 제시

완(완전할원) 州(고을주). 완주군은 한자 뜻 풀이 그대로 사람이 살기에 ‘완전한 고을’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거리를 찾아, 또 먹고 살기 위해 완주군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0만명 시대를 돌파했다.

신규 주거단지 조성, 수소특화 국가산업인구 10만 5명을 기록했다. 36년 만의 10만 인구 회복이다. 완주군의 인구 증가 배경과 앞으로의 ‘완주시’ 승격 등 완주군의 비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살기 좋은 10만 완주군

완주군의 인구증가는 2022년부터 두드러졌다.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매월 평균 260여 명이 늘어났다.

2023년 인구 통계에서는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 1위(5,405명 증가)라는 기록을 세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인구 100명당 순유입되는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순유입률은 2022년 2.3% 대비 4.0% 상승한 6.3%를 기록해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도내 출생아 증가 규모는 1위로 전북 전체의 67%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3년 용진읍은 30여 년 만에 인구 1만 명을 회복했으며, 삼례읍은 40년 만에 인구 2만 시대에 재진입했다.

2023년도는 삼봉지구,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등 신규 주거단지의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다. 완주군은 주거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발히 유치되면서 테크노밸리 2산단이 완판을 앞두고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구증가 기초지자체는 전국에서 21곳에 불과한데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으로 확대해도 완주군과 광양시 뿐이다.

완주군 10만 인구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정주여건, 기업유치, 인구정책, 귀농귀촌 활성을 꼽고 있다.

삼봉, 운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규 주거단지 입주가 이뤄졌고, 테크노 제2산단 분양 완판 눈앞, 임산·출산·돌봄 정책 확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선순환하면서 9년 연속 전북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완주형 인구성장 정책 확대

이제 완주군은 인구 10만 시대를 맞아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 도시 완주’를 목표로 나아간다. ‘경제, 산업, 인구, 문화, 교통, 주거’ 등 다되는 ‘완주’ 실현을 위해 △도시성장 가속화 △경제성장 고도화 △행복성장

지속화 △읍면성장 특성화 등 4대 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한다.

도시성장 가속화를 위해 삼례·봉동·용진의 도시 연담화를 통해 도시 성장의 중심축을 구축하고, 삼봉2지구 조기 조성과 신규 택지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전주 에코시티 연결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계획 재편을 통해 전북 4대 도시 도약과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완주형 인구정책, 관광 콘텐츠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성장 지속화를 통해 2035년까지 전국 군 단위 1인당 GRDP(지역총생산) 1위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규 국가·일반산단을 추가 조성하고, 기존 제조업은 AI 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한다.

또한, 방위산업과 AI 등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방산핵심클러스터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다. 더불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수소특화산업 단지 조성, 한국수소기술원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G 경영 도입, 햇빛연금제 등 기본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선도산단과 종합스포츠타운 등 대도시 수준의 문화체육관광 서비스를 확충해 행복성장을 지속화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농촌유학 활성화, 지역혁신대학 지원 등으로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정주환경 개선, 자전거 관광 활성화, 파크골프 인프라 등 스포츠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지역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해 권역별·읍면별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대중교통망 개편과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 농촌협약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꾀하고,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상하수도 등 생활 SOC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주민참여형 예산 확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문화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자치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근 기자



인터뷰

유희태 완주군수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을 달성한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며 “이는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협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상징적 기록이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거·산업·교통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가 인구 증가를 견인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단순히 도시 외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청년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노후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로 보장되는 구조를 꾸준히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다각도의 정책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10만 인구 시대를 여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향후 완주군이 ‘전북의 중심도시’, 나아가 ‘글로벌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4대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군수는 “10만 명의 인구는 곧 10만 개의 삶의 이야기로, 10만 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완주군이 더 살기 좋고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